

일본 지식산업의 전방과 후방

세번째의 저작권 紀行^㉑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1 일본정부의 저작권행정은 문화청 문화부의 저작권과에서 담당한다. 문화청이 文部省의 외청인만큼 인사교류에 있어서 서로간에 문턱이 없다.(청사도 문부성 건물에 같이 쓰고 있다.) 이번에 찾아가서 초면 인사를 나눈 아메미야(雨宮忠) 저작권과장도 지난 9월 말 문부성 학술국제국 유학생과장에서 옮겨온 사람이었다.

저작권과 사무실은 예상보다는 협소하고 산만해 보였다. 작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저작권훈련과정에 참석했던 하꾸이(伯井美德) 사무관의 안내를 받아 다른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바로 얼마전에 저작권심의회 제1소위원회에서 인접권조약 가입 문제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요약문서가 나왔다면서 한 통을 건네준다.

아다시피 인접권조약이라 함은 1961년 로마에서 성립된 '실연자, 레코드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약칭으로서 일본은 아직도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심의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외국의 레코드제작자의 보호 실태 및 저작권 인접권제도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착된 상황에 비추어,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제는 인접권조약에 가입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약에 가입하여 외국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을 국내에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인접권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외국의 압력에 대비하여 눈여겨볼 일이 아닌가 싶다. 작년 10월 현재의 인접권조약 체결국은 31개국이다.

일본의 저작권자료협회는
저작권에 관한 간행물을 많이 내고 있다.
다달이 내는 뉴스레터 외에 관계 논문·자료를 소개하는
'저작권 시리즈'도 이미 80권 가까이 났다.
이러한 출판비용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 저작권자료협회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단체이다. 저작권에 관한 간행물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이라서 사무실도 넓고 인원도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축소지향'이었다. 협회의 야마다(山田文夫) 사무국장은 연전에 나에게 초청장도 보내준 분이어서 반갑게 만날 수 있거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참출장중이라 상면을 못했다. 그러나 젊은 간사 한 사람이 나의 방문예고를 야마다국장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았으면서 미리 챙겨놓은 서적 한 아함을 선물로 주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저작권 인접권용어사전」(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의 영·불·일 對譯版과 약 600면에 달하는 일본의 「저작권자명부」가 그중 반가웠다.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듯이 이 협회는 「コピーライト」라는 저작권 뉴스레터를 매달 내고 있는가 하면, 저작권에 관한 논문·자료를 소개하는 「저작권 시리즈」도 이미 80권 가까이 간행하였다. 이러한 출판비용은 문화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하니 우리 정부도 귀담아 들어줄 만한 일이라고 믿는다.

3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學院)대학에는 나

의 전공과 관계가 있는 두 분의 교수가 재직 중이다. 그중 한분은 언론법분야의 권위자이며 일본출판학회 회장이기도 한 시미즈(清水英夫)교수이다. 일찌기 「법과 매스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서울에서 열린 출판학술 심포지움을 계기로 친숙해진 사이이다. 이번에도 따뜻한 후대를 받고 여러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분 자신이 쓴 「언론법 연구」도 기증받았다. 그는 사상과 언론의 역제를 집요하게 반대해온 기백있는 학자로서 한국의 언론관계 입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리한 질문을 하는데는 놀랐다.

또 한 분은 저작권법의 대가인 한다(半田正夫)교수인데, 이분은 시미즈교수의 주선으로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나는 그분의 저작권에 관한 몇 권의 저서를 읽은 터여서 초면답지 않게 수월하게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릴 수 있었다.

나는 일본 학자 중에서 그가 특이하게 「저작권일원론」(독일의 Eugen Ulmer교수의 학설이 그 기반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을 표명하자 몹시 반가운 듯이 응대해주었다. 당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얼마 전에 발행된 그의 「저작권법개설」제4판을 방문기

념으로 받았는데, 이 책은 1986년에 일본의 저작권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유신송신권 등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증보한 것이다.

4 출판뉴스사의 마쓰모토(松本利通)사장과 기요다(清田義昭) 편집장도 만나서 일본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출판뉴스」誌는 한 달쯤 전에 「UCC에 가입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내 글을 실은 인연 때문인지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여기서도 책선물을 받았다. 「저작권사전」의 개정판(1985)과 「책의 정보사전」(1987) 등은 활용의 여지가 큰 책들로서 진수성찬보다도 고마웠다.

동경대학출판회의 전무이사인 이시이(石井和夫)선생은 일본대학출판협회의 간사장이기도 하다. 1986년 11월 한일대학출판협동세미나에서 알게 된 분인데, 시내로 나오겠다는 것을 굳이 내가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전화로 자청했다. 동경대학이란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경대학에 들어가기는 무척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한선생이야 무시힘이지요.”

동경대학 캠퍼스는 고풍과 유서가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 일별할 만한 곳이었고, 그 대학의 명성과 상처를 아울러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 유명한 야스다(安田) 강당 뒤쪽에 대학출판부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300면이 넘는 「도서목록」이 동경대학출판회의 질과 양을 아울러 말해주는 듯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졸업장은 없지만 '아카몽(赤門)'을 나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文學의 構造와 想像力

노드롭 프라이 저/이상우 옮김
 “캐나다 이외에서는 출판된 적이 없고 캐나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연된 프라이 교수의 독특한 문학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은유의 동기
 제2장: 노래하는 학교
 제3장: 시간 속의 거인들
 제4장: 꿈나무로 가는 열쇠
 제5장: 아담의 사다다리
 제6장: 수사법의 재능

부록: 문학과 신화/문학의 원형/사회적 상상력

集文堂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中國共產主義運動史

申相楚 著
 “1919년 5·4운동부터 1987년 제13차 전당대회까지 웅장한 대륙에서 전개된 파노라마!”

신해혁명과 5·4운동/중국공산당의 발족/추수폭동과 혁명근거지/항일민족통일전선/승리와 협상/중화인민공화국 창설/1차5개년 계획/대약진과 인민공사/문화혁명/.....

국판/428쪽/5,000원

집문당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동행 기획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120 서울·서대문구 미군동142번지
 3131-319

온라인컴퓨터사식

조판시스템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진영사
 인주 원주에 정성을 담으리라는
 ☎ 733-5755

• 컴퓨터사식사 • 수동사식사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